

사회적경제 박람회 민관공동추진위원회 출범

전주시, 성공 개최 위해 민간단체들과 논의·결의 다져… 10월 24~25일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

전주시가 오는 10월 전국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민간단체들과 손을 잡았다.

시는 28일 전주지역소통협력센터에서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민관공동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박람회 준비를 위한 주요 사항 논의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시는 우선 지역 특성이 박람회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주지역 사회적경제 단체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주지역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사회적협동조합 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오춘자 이사장을 지역추진위원회 위원장이자 민관공동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민관공동추진위원회는 전주시와 전주지역공동추진위원장, △한국사회연대경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



전주시는 28일 전주지역소통협력센터에서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민관공동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박람회 준비를 위한 주요 사항 논의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국자활기업협회, △한국사회적기업중

국의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시민발전이중협동조합연합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되어 박람회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날 추진위는 박람회를 10월 24일~25일 2일간 전주시청 농소광장 일대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전국의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사회적경제 최대 행사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8년 대구를 시작으로 2019년 대전, 2021년 광주, 2022년에는 경주, 2023년 부산, 2024년 국회에서 개최했다.

시는 올해 박람회가 전주에서 열리는 만큼 전국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 유관단체, 일반시민 등이 전주를 방문해 즐기고 갈 수 있도록 문화·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토록 개최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접수

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3만 6,809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 전주시의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상승률(0.93%)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평균 1.36% 소폭 상승했으며, 구장별로는 완산구가 1.09%, 덕진구가 1.6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가 전체의 8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3억 초과 주택은 대부분 다가구주택이다.

최고가는 풍남동3가 74·7번지에 위치

한 단독주택으로 19억1천2백만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3천5백만 원이 상승한 금액으로, 한옥마을 중심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전주시청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시는 제출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해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제(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가 28일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교육장에서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 등을 상대로 찾아가는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가졌다.

여성자활지원센터 자활참여자 및 자활 지원 활동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자활 참여 여성 청년 및 이용자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집다운 집 찾기 △안심할 수 있는 집 찾기 △부담 가 능한 집 찾기 △부동산 중개어플 이용 법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등 계약체결 전·후 알아야 할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또 임대인과의 분쟁 사례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청년 주거정책 등도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번 교육 강사로 청년 주거권 보장

과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달팽이유니온(김가원 사무처장)에서 맡았다.

이밖에도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교육 외에도 시민과 외국인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홍보 및 정보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제공한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다국어 번역본 12개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로 된 양식을 공유하고 있다.

오은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활 참여 여성들이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의 사항들을 제대로 숙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최용철 의원 대표발의 시정 홍보 조례안 채택

전주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홍보 활동의 개념 정립 및 체계적 운영 △시장의 홍보 책무 및 홍보계획 수립·시행 △홍보매체 운영기준 △이용자의 홍보 참여 활성화 △홍보행사 및 경품 제공 기준 마련 △자료 관리 및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용철 의원은 “시정 홍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소통의 창구”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평화2동 지사협, ‘문화보석’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전석진)는 지난 25일 사랑의 열매 ‘착한가게’에 동참한 ‘문화보석’에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사랑의 열매 ‘착한가게’는 수익금의 일정 금액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기부를 실천한 업체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제작한 인증 현판을 받을 수 있다.

문화보석 조상철 대표는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을 밝혔다.

전석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문화보석의 착한가게 가입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훌륭한 사례로 지역의 더 많은 가게들이 참여해 나눔의 선순환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술지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